

존 오스왈트 박사, 킹스, 세션 16, 3부

열왕기상 21-22장 3부

© 2024 존 오스왈트와 테드 힐데브란트

거기에 성경이 있다면 아합의 후계자 아하시야를 소개하는 51, 52, 53절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더 이상 언급되지 않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다음번에 조금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바로 두 권의 책이 한 권의 책이라는 최고의 증거이다. 왜냐하면 우리는 여기 1권에서 아하스의 이야기를 시작하지만 그것을 끝내려면 2권으로 넘어가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아합의 죽음에 대해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그런 다음 41절부터 50절까지에서 여호사밧의 통치를 언급합니다. 그래서 그들은 전쟁에 나갑니다. 자, 다시 한 번 생각해 보면, 아, 애야.

확실히 아합은 미가야의 말에 동요했습니다. 그래서 그가 말했습니다. “여호사밧아, 너는 가서 왕의 예복을 입지 않느냐?” 그리고 나는 겸손한 군인처럼 옷을 입을 것입니다. 그리고 여호사밧은 “내가 조롱하고 있다면 실례지만, 아, 그거 좋은 생각인 것 같군요.”라고 말합니다.

응, 내 생각엔 왕실 예복을 입을 것 같아. 그래서 시리아 군인들은 우리가 가져야 할 것은 아합이라는 말을 들었습니다. 이스라엘 왕을 잡아라, 왕을 잡아라, 머리를 자르면 모든 것이 잘 될 것이다.

그러니 다른 사람을 쫓지 마세요. 이스라엘 왕을 따라가라. 이는 아합이 단순한 존재가 아닌 존재가 아니라는 점을 다시 한 번 말해줍니다.

그는 ~였다. 그는 약 20년 동안 통치한 유능한 왕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왕실 예복을 입은 이 남자를 봅니다.

아, 그 사람이 간다. 가, 가, 가, 가, 가. 그리고 여호사밧이 부르짖었다고 합니다.

그러자 그들은 '아, 이스라엘 왕이 아니구나' 하고 쫓기를 그쳤습니다. 정말 흥미롭습니다. 그는 무엇을 외쳤습니까? 그가 외쳤는지, 도와주세요.

모르겠습니다. 아니면, 나는 유다의 왕이다라고 외쳤을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모른다.

그런데 그들은 '오, 여호사밧뿐이다'라고 말했습니다. 잊어버리세요. 이번에도 불쌍한 여호사밧은 여기서 잘 나오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 훌륭하고 멋진 라인이 나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이, 34절입니다. 어떤 사람이 임의로 활을 당겼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이스라엘 왕의 갑옷 사이에 맞았습니다.

그냥 우연히. 성경에는 우리가 이것이 하나님의 섭리임을 분명하게 이해해야 할 그런 곳이 서너 군데 있습니다. 그런데 또 그런 일이 일어났습니다.

방금 그런 일이 일어났습니다. 친구 여러분,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이제 아합은 흉갑을 차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평소에는 등에 갑옷이 없었습니다. 그것은 단지 흉갑이 그들의 등 뒤에 벨트를 두른 것뿐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도 체인 메일을 착용하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체인 메일은 앞면과 뒷면을 덮습니다. 하지만 팔 아래에는 앞면과 뒷면이 합쳐지는 관절이 있고, 일반적으로 어떤 방식으로든 잘려져 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간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도 창을 던지기 위해 팔을 들고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리고 그 화살은 한 곳으로 옵니다.

그가 보호받지 못하는 유일한 곳. 오, 친구들이여, 하나님과 싸우지 마십시오. 하나님과 싸우지 마십시오.

보호받을 곳은 없습니다. 숨길 수 있는 곳은 없습니다. 그와 함께 가십시오.

그를 반대하지 말고 그를 위해 가십시오. 자, 여기서 우리가 갖고 있는 아합의 모습은 다시 한 번 호의적인 것입니다. 내 생각에 그 사람은 자기가 죽었다는 걸 알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나 그는 나를 전투에서 몰아내라고 말했습니다. 이제 다시 그는 군인처럼 보입니다. 시리아인들은 자기들이 무슨 짓을 했는지 모릅니다.

나를 전투에서 몰아내세요. 전쟁은 하루 종일 치열했고, 왕은 병거를 타고 아람 사람들을 향하고 있었습니다. 나머지 이스라엘 군인들은 그가 누구인지 알고 있었습니다.

그는 왕실 장미 옷을 입지 않았을지 모르지만 그들은 그가 누구인지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언덕 위에 있습니다. 그들은 일어서서 "알았어, 알았어"라고 말합니다.

아합이 이 전투를 지휘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싸울 것입니다. 이제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것이 성경의 특징 중 하나입니다.

한편으로 성경은 영웅들을 희화화하지 않습니다. 믿음의 사람 아브라함은 돈이 떨어지자 아내에 대해 거짓말을 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 다윗은 끔찍한 정욕의 순간에 다른 사람의 아내를 취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그 반대 영웅들에게도 타르칠을 하지 않습니다. 만일 아합이 생애의 마지막 날에 용감히 일어나 그의 생명을 앗아갔다면 성경은 그것을 기록할 것입니다. 아합이 회개하면 성경은 이를 보고할 것입니다.

왜? 성경은 이스라엘의 선전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요즘 학술자료에서 이런 내용을 자주 보게 됩니다. 아, 그렇습니다. 성서는 또 다른 선전물일 뿐입니다.

잘 쓰여졌네요. 흥미 롭군. 그러나 그것은 단지 이스라엘을 부풀리기 위해 존재할 뿐입니다.

나는 가능한 한 단호하게 당신에게 말합니다. 성경은 이스라엘의 선전이 아닙니다. 물론, 사람이 성령의 감동을 받아 쓴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인간의 다양한 오류를 반영할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여전히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원하시는 것을 말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가 여기서 말하고 싶은 것은 '예, 아합이 끔찍한 선택을 했을 수도 있습니다'입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가 완전히 절망적이고, 썩고, 더러운 존재였다는 뜻은 아닙니다. 아닙니다. 그리고 결국 미가야가 본 것처럼 그는 쓰러지고 군대는 무너졌습니다.

그 외침은 군대 전체에 퍼졌습니다. 각 사람은 자기 천막으로 갑니다. 각 사람은 자기 땅으로.

가다. 정확히. 나는 이스라엘을 산 위에 흩어진 양떼로 보았습니다.

목자는 없습니다. 그래서 그는 죽어 사마리아로 옮겨져 그곳에 장사되었습니다. 그들은 매춘부들이 목욕하던 사마리아 못에서 병거를 씻었습니다.

이제 우리는 모릅니다. 우리가 아는 한, 매춘은 인도에서와 마찬가지로 사원 사업이었습니다. 일부 대도시에서 볼 수 있는 흥등가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아마도 이곳은 바알 여사제들이 씻은 곳일 것입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그들은 아합의 병거를 씻어냈습니다. 그리고 개들은 피 묻은 물을 핥기 위해 거기에 있습니다.

하나님과 싸우지 마십시오. 그 다음에는 여호사밧에게 갑니다.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이것은 이스라엘과 유다의 역사가 아니라 모든 사건을 동등하게 보도하고 모든 이야기를 전달하려고 하는 곳이 아닙니다.

아니요, 매우 선택적입니다. 이 시점에서 주요 초점은 북쪽 왕국에 맞춰져 있다. 바알과 야훼의 싸움이 벌어지는 곳이다.

이곳은 엘리야와 엘리사의 사역이 본격화되는 곳이다. 따라서 여호사밧은 아합처럼 25년 동안 통치했지만 그에 관한 몇 구절만 얻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이야기의 핵심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이제 역대기에서

여호사밧은 더 많은 대우를 받게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역대기는 공동체의 영적 생활과 왕이 영적 생활, 예배, 성전 활동을 장려하기 위해 무엇을 했는지에 관심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연대기는 그것에 많은 것을 제공합니다. 그러나 바알과 야훼의 싸움에 비하면 여호사밧은 비극적으로 그다지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좋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실제로 여호와와 길로 자신의 왕국을 이끌려고 노력했습니다. 그러나 투쟁에 있어서는 그의 며느리가 아합의 딸이었다. 그래서 Kings는 그에게 비교적 작은 대우를 제공합니다.

이제 43절을 주목하시기 바랍니다. 이제 손가락을 거기에 대고 15장으로 돌아가십시오. 15장 11절.

그리고 아사가 무슨 말을 하는지 주목해 보십시오. 아사는 그의 아버지 다윗처럼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했습니다. 두 구절의 차이점은 무엇입니까? 아사는 다윗의 기준으로 자신을 평가했습니다.

여호사밧은 아사의 표준으로 자신을 평가했습니다. 다시 한번 말하지만, 나는 그것이 우연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몇 년 전에 책장을 만들었어요.

나는 매우 조심스럽게 선반을 측정했습니다. 첫 번째를 측정했습니다. 16인치까지 바로 잡았습니다.

그런 다음 이를 사용하여 두 번째 선반을 표시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선반을 사용하여 세 번째 선반을 표시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선반을 사용하여 네 번째 선반을 표시했습니다.

당신은 이것이 어디로 가는지 알고 있습니다. 네 번째 선반은 첫 번째 선반보다 1/4인치 더 짧았습니다. 톱날이 떼어낸 나무의 양인 톱 절단을 허용하는 것을 잊어버렸습니다.

아사는 다윗의 기준으로 자신을 평가했습니다. 아사는 좋은 사람이었습니다. 이제 다시 역대기는 그의 생애 말기에 그가 그다지 좋지 않았음을 우리에게 말할 것입니다.

그러나 전반적으로 그는 하나님을 향한 마음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ifs도, ands도, buts도 없습니다. 좋은 사람.

좋은 사람. 그리고 여호사밧은 그의 아버지로 자신을 평가했습니다. 아사는 다윗에게서 16분의 1인치 떨어져 있었습니까? 나는 그것이 요점이라고 생각합니다.

나는 그것이 요점이라고 생각합니다. 표준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당신과 나의 기준은 누구입니까? 예수님이십니다.

감히 나를 기준으로 자신을 평가하지 마세요. 감히 당신을 그리스도께로 인도한 사람으로 당신 자신을 판단하지 마십시오. 요즘 우리는 위대한 기독교 지도자들이 특별한 간음에 빠졌다는 소식을 듣고 마음이 무너졌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망가졌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맙소사.”라고 말했습니다. 여담이지만, 그런 이야기를 들을 때면 끝까지 충실하신 빌리 그레함 목사님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그것에 대해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그러나 빌리 그레함의 기준으로 자신을 평가하지 마십시오. 감히하지 마십시오.

오직 하나의 기준인 예수 그리스도로 자신을 평가하십시오. 그분은 우리가 우리 자신과 비교해야 할 분입니다. 이 이야기에는 이 몇 구절에 흥미로운 내용이 너무 많습니다.

44절을 보십시오. 여호사밧도 이스라엘 왕과 화목하였더라. 바로 이거 야.

바로 이거 야. 당신의 삶에는 그런 작은 여유가 있습니까? 오 예. 그녀는 또한 쇼핑몰에서 많은 시간을 보냈습니다.

오 예. 그는 복권에 많은 돈을 낭비했습니다. 오 예.

아뇨. 저는 제쳐두고 싶지 않습니다. 그에게는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그런데 여호사밧 이야기의 결론은 그 패턴을 그다지 고수하지 않기 때문에 흥미롭습니다. 45절을 보십시오. 여호사밧의 남은 사적과 그가 행한 사적과 그의 군사적 공적은 유다 왕 역대지략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예, 그것이 솔로몬 이후의 모든 왕에 대한 종결 공식이 시작되는 방식입니다.

그런 다음 일반적으로 50절에 있는 내용과 동일하게 진행됩니다. 여호사밧이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자매 그의 아버지 다윗 성에 그들과 함께 장사되고 그의 아들 여호람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이 두 구절은 일반적으로 함께 진행됩니다.

그리고 예를 들어 아합의 마지막 부분을 보면 22장 39절과 40절을 보십시오. 아합의 통치의 다른 사건들과 그가 행한 모든 일에 관해서는 그가 건축하고 상아로 장식한 궁전과 그가 요새화한 성읍들은 이스라엘 왕 역대지략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아합이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자매 그의 아들 아하시야가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그게 일반적인 패턴이에요.

여기 여호사밧에서는 일반적인 패턴이 깨졌습니다. 그리고 다시 한 번, 당신은 '좋아, 오스왈드, 우리에게 설명을 해주세요'라고 말합니다. 나는 할 수 없다.

그러나 나는 단지 성서 연구를 할 때 패턴을 깨는 일들에 주의하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만약 그렇다면 저자가 무언가에 관심을 환기시키고 있다고 말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는 요점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요점은 무엇입니까? 45절과 50절 사이에는 어떤 내용이 있습니까? 그는 그의 아버지 아사가 왕이 된 뒤에도 그곳에 남아 있던 신당 남창들을 모두 제거했습니다. 에돔에는 왕이 없었습니다. 지방 주지사가 통치했습니다.

그것은 두 번째 책의 세 번째 장에서 중요해질 것입니다. 이제 여호사밧은 금을 얻기 위해 오빌로 가기 위해 무역선단을 만들었지만 결코 항해를 하지 않았습니다. 에즈와 게벨에서 파멸하였느니라.

그 때에 아합의 아들 아하시야가 여호사밧에게 이르되 내 사람들도 당신과 함께 항해하게 하라 그러나 여호사밧은 거절했습니다. 실제로 세 가지를 말하고 있습니다.

첫째, 그는 아버지의 일을 완수했습니다. 그에게는 잘된 일 이네요. 그는 에돔의 통치자였습니다.

그곳에는 도지사가 있었습니다. 그는 솔로몬의 모델을 따라 무역선 함대를 만들었지만 그 선박은 난파되었습니다. 그리고 아하시야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자, 역대기를 보면 사실 아하시야가 여호사밧이 그 배들을 만드는 것을 도왔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결국 여기에 요점이 있습니다. 여호사밧이 말했습니다. “잠깐만 기다리십시오.

좋아, 당신은 내가 그것을 만드는 데 도움을 주었지만 당신의 부하들은 내가 항해하는 것을 돕지 않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망했습니다. 내 생각에 우리가 여기서 다시 보는 것은 이 이중 마음입니다.

그는 정말 좋은 일을 했지만 적과 장난을 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결국 그가 "좋아, 적아, 지금까지는 아니고 더 이상은 아니다"라고 말해도 여전히 잘 풀리지 않았습니다. 영적으로 민감하고 하나님의 길을 원합니다.

동시에 나는 두 진영 모두에 한 발을 담으려고 노력하고 있었다. 당신은 그것을 할 수 없습니다. 당신은 글썄요, 아니, 잠깐만요.

나는 설교자가 아닙니다. 나는 전도자가 아닙니다. 나는 선교사가 아닙니다.

저는 평범한 기독교인일 뿐입니다. 예. 예.

평범한 기독교인. 당신은 하나님을 향한 철저한 헌신을 해야 합니다. 그렇다고 당신이 반드시 설교자가 되어야 한다는 뜻은 아니다.

그렇다고 당신이 반드시 선교사나 전도자가 될 것이라는 뜻은 아닙니다. 아니 아니. 우리는 거기에서 실수를 합니다.

글쎄, 내가 정말로 하나님께 자신을 팔아넘기려면 직업적인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아니 아니. 당신이 정말로 하나님을 위해 헌신한다면 당신은 가게에서, 집에서, 들판에서, 길에서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될 것입니다.

두 진영 모두에 한 발을 담그려고 하지 마십시오. 두 발을 예수님 위에 얹고, 그분을 위해 살고, 당신이 어떤 사람이 되어야 하는지 찾으십시오. 하나님의 축복이 있기를.